



전승환 레오 | 작가

## |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저 책이 좋아 시작했던 <책 읽어주는 남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은 30만 부가 넘게 팔리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며 대단하게 봐주셔서 여전히 열떨떨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작가라는 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한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당 활동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하고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당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글을 쓰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또 책에서 좋은 글귀들을 뽑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신앙 안에서 늘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기획, 프로그램 개발, 영상 시나리오 작성 등 늘 글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의 품 안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리교사 시절 수녀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봅니다. 수녀님께서 소임을 다 하시고 떠나시는 날 제게 “승환아 지켜봐 왔는데 너는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수녀님께서 제 작은 능력을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신앙인으로서 참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글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는 글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글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대 삶에 바람 불어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그분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 당신 꺾이지 않으리  
그대 삶에 파도쳐 이리저리 휩쓸릴지라도  
그분이 등불 비춰주고 계셔 당신 길 잃지 않으리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빛이 되어 주시고 눈물 닦아 어깨 내어 주시니  
우리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리

우리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  
버틸 수 있네, 행복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 성체를 씹어 먹어도 되나요?

교회법전에는 영성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고 마음가짐에 관한 지침만 있습니다. 성체를 침으로 녹여 먹는 것이라면, 성체성가도 영성체와 함께 시작하지 말고 성체를 삼킨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체를 씹어서 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믿음에는 예수님처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